법사종 경제회복 기원 및 종정 · 총무원장 취임법회

"21세기 신 대승불교운동 나서자"

원덕 성순경 총무원장 취임사

존경하는 교계 각 종단의 전·현 종정 대종사님, 여러 총무원장 큰스님, 그리고 사부대중 여러분과 각계각층에 계시는 내외빈 여러분께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이 법석에 함께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수행의 길로 이끌어 주신 은사·법사·계사 여러 스승님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공철학이며 실상철학이며 무진 연기철학인 불교, 바로 그 자체가 평등이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남존여비사상의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오늘의 상황에서 여성인 저를 총무원장직으로 이끌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생활불교 지향 · 복지사업 주력
재가법사 양성 · 공제조합 설립

이같은 일은 이 시대, 아마 저에게 주어진 부처님의 소명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이 모두가 부처님의 원력이요 법사종 종도의 원력으로 생각하고 지난날의 전법활동을 거울삼아 성과 열을 다 받쳐 종무행정은 물론 전법활동에 전력을 다 기울일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부처님 전에 서원하며 여러분 앞에서 굳게 다짐하는 바 입니다.

불교란 부처님 말씀대로 자성을 밝히는 종교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몽에 헤매는 모든 중생들을 깨침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법은 중생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중생의 아픈 마음을 달래며, 쓰다듬고 정화시키며 궁극에는 견성성불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하겠습니다.

21세기를 맞이하는 이 때 생활불교·현대불교 나아가 세계불교를 지향하는 재가법사운동으로써 개혁이 일어나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지금이야말로 신 대승불교란 기치를 새로이 내걸고 과감히 현시대에 적극 뛰어들어야 하겠습니다.

다시말해서 명실상부한 반야지혜불교로 유무생명의 실체적 불교를 지향하고 실질적이고도 체험적인 불교를 지향하며 모두의 불교, 자연과 더불어 하는 불교, 무진연기 세계와 함께하는 불교, 개방불교, 다원불교, (전방위불교)실용불교, 동화불교, 너와 내가 함께하는 불교, 심(心)불교운동의 동체대비사상으로 과감히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종단 종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여 힘을 기울일 각오입니다.

첫째 전법을 위한 법사양성지도자 배출에 전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둘째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모든 법사의 총 역량을 응집할 것입니다.

셋째 재가불자들의 지위향상을 위한 실천적 불사를 전개할 것입니다.

넷째 불자 가가호호마다 불단설립을 위한 운동을 적극 전개할 것입니다.

다섯째 법사전법의 상징인 법사회관 건립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여섯째 법사 공제조합을 설립하여 법사전법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일곱째 사회 전반에 걸친 복지사업에 적극 앞장 설 것입니다.

이같은 불사를 전개함으로서 전국불교 법사와 법사종도들의 위상을 드높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법사종도는 이에 심기일전하여 법사 본연의 임무에 충실함으로써 내일의 이정표로 함께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시간에 같이 봉행하는 법회는 나라의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기원법회입니다. 우리 불자들은 역사적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국난극복을 위한 공적이 허다하였음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과거에도 나라를 위한 호국불교를 했고 또 구국에 앞장 섰습니다. 또한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해 독립을 외치며 나라 안팎에서 애국의 역군으로도 활약했습니다.

이번 외환위기에 빠진 나라 구하기와 경제회복에 전 불자가 다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말 그대로 호국불교로서 부강한 나라 청정한 나라가 되도록 다 함께 총 매진합시다.

끝으로 불교중흥과 종단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본 법회를 원만히 진행되게 후원하여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이것으로 취임사에 가름합니다.

약력

- 1946년 경기도 파주 生.
- 1961년 동호스님을 은사로 묵담스님을 계사로 봉원사에서 득도. 불명 소황, 법호 원덕.

동국대 대학원 인사관리학과, 사회복지학과, 불교학과, 문예창작과 수료.

- 1970년 금강원 창립 겸 주지원장 및 원장(현재) 취임
- 1980년 세계불교도우의회 부회장(현재)
- 1981년 대한불교여성회 중앙총본부 창립인 겸 사무총장
- 1983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위원 마포구 여성회장 및 상임위원(현재)
- 1987년 마포경찰서 선진질서위원(현재)
- 1992년 동국대 행정대학원총동문회 부회장(현재)
- 1992년 (사)법사불보신문 발행인 겸 편집인(현재)
- 1992년 창송교도소 종교위원
- 1992년 영등포구치소 종교위원(현재)
- 1994년 (사)한국불교전국여법사회 법인설립 이사장 겸 회장(현재)
- 1995년 동국대학교 총동문회 이사
- 1998년 4월 대한불교 법사종 제2대 총무원장 취임

수상

- 조계종 전국신도회 표창장
- 태고종 총무원장 표창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로상
- 제6회 조계종 포교대상 원력상
- 94년 대통령 표창장
- 법무부장관 표창장(2회)
- 96년 국민훈장석류장

저서

- 1980년 어린이 불교성전
- 1981년 〈일기쉬운 불교교리〉

종정 취임기념 게송

◇청하 하순성 종정

천상사시춘작수(天上四時春作首)
지유공심수수화(地有公心樹樹化)
운고기산심수장(雲高氣山深水長)
수급불류월만정(水急不流月滿情)

하늘은 사시사철을 봄으로부터 머리를 짓고
땅은 공정한 마음이 있어서 나무나무마다 꽃을 피게 한다.
구름은 높고 기는 산과 같고 물은 바다 같고
물은 급히 흘러도 달은 물 위에 떠 있듯 정은 가득하고
세상은 급히 변할지라도 너와 나와 부처님과 뎃은 정은 변치 말세.

강령 · 종시 · 지표

강령
반야(般若 · 지혜)
자비(慈悲)
화동(和同)

종시(宗是)
불법을 지킨다
불법을 익힌다
불법을 전한다

지표
사람마다 불자되게(人人佛子化)
집집마다 불당되게(家家佛堂化)
곳곳마다 불토되게(處處佛土化)

창종 선포문

자비 평등정신 바탕 보살도 구현

삼계의 대도사이시며 사생의 자부이신 석가모니부처님께서 중생제도를 위해 불법을 펴신 지 어언 2500여년이라.

불법의 전법과정에서 파생된 각양각색의 종파의 난립과 명멸함이 마치 불교적 백가재명이라.

저 신라의 화쟁논사인 원효대사의 통불교적 안목은 석존의 재시현인양 그 법통 찬연하였도다!

그러나 불교의 귀족불교화와 선승위주의 불교 배불훼석의 조선불교는 불교를 산중불교화하여 불교를 침체의 수렁에 빠뜨렸으니 심히 통탄할 일이라.

다행히 조선말기 만해 한용운스님의 불교유신이 우리 모두에게 햇빛을 안겨주듯 참신하여 새로운 전법의 광명이 될 듯 하더니 8·15 조국해방을 전후하여 수많은 법난을 겪었음에도 아직도 각자 고집스러운 종지만을 거머쥔 채 아상이란 멍에를 벗지 못하고 전법의 대상마저 인식못하는 듯 편견과 아집은 날로 더해가며 갈수록 부처님 본래의 전법정신에서 멀어져감을 안타까이 여긴 나머지 수많은 종단의 종지 갈등을 지양하고 통불교적인 차원에서 명실공히 부처님의 자비평등정신을 바탕으로 민초를 뿌리로 하는 전법의 궤도를 수정 지향함으로써 안으로는 보리를 구함에 전념케 하고 밖으로는 전법도생케 하여 보다 실질적이고도 실천적인 보살도 구현에 총력을 다할 것이며 나아가 이 땅에 부처님의 광명을 만고에 빛나게 하고 삼보를 법계에 두루 유전케 할 것이라!

삼가 석가세존의 가호아래 모든 불자의 무궁한 번영을 빌며 본종 창종을 선포하는 바이다.

불기 2538(1994)년 11월 11일

연혁

1994년 11월11일 창종선포
1995년 1월21일 교육원(강원도 홍천군 소재) 현판식
1995년 5월21일 세계평화와 남북통일 기원 제30회 경로위안대법회
1995년 8월15일 민족의 영산 백두산에서 남북평화 통일기원대법회 봉행
1995년 11월12일 하순성 총무원장 일본문화진흥회로부터 국제아카데미상 수상
1996년 11월11일 법사종 창종 3주년 기념법회
1997년 3월15일 종립 법사대학 설립. 제1기 법사과 포교사과 각각 60명씩 모집
1997년 8월10일 법사대학 개교 제 1기 신입생 입학식
1997년 6월25일 국립묘지 호국영령 및 이승만 박정희 前대통령 묘소 추모법회
1998년 4월17일 나라경제회복 및 민생안정을 위한 기원법회, 제1세 하순성 종정 및 2대 성순경 총무원장 취임식

기구표

대회사 연제 윤호석 총재

"간절한 참회 발원으로 위기극복 동참합시다"

존경해 마지않는 교계 고승대덕 여러분과 사회 각계각층에 계시는 귀빈과 사부대중께서 공사간 다망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같이 이 자리에 동참하여 주신데 대하여 무어라 감사의 말씀을 올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불기 2542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부처님께서 일대사 인연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경건한 마음으로 봉축하고, 또한 외환위기로 나라경제가 파탄에 처한 이 난국이 한시라도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는 기원과 더불어 차제에 종단의 체제 재정립을 위한 쇄신정책의 일환인 본종 제1세 종정의 추대와 제 2대 총무원장 취임법회를 봉행하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동남아시아를 비롯 경제대국이라 자처하는 일본과 우리나라 모두가 금융위기로 경제가 매우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라 금고엔 외환이 바닥나고 금융위기란 독화살은 중소기업, 대기업 등 모든 기업의 심장을 뚫고 전기업을 혼수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을뿐 아니라 하루에도 1만명의 실업인구가 거리를 방황하고 2차, 3차 산업의 도산상황이 목전에 이른 현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전 불자들은 지난날 이 나라 이 땅을 훌륭히 지켜왔던 그 호국불교정신을 오늘에 되새겨 부처님 전에 5분향례 올리며 깊은 참회와 아울러 간절한 구원의 발원은 물론 불교 본래의 생활덕목인 근검절약정신을 행동으로 옮기는 결의와 각오를 굳게 다져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실천적 선행으로 본 종단 쇄신차원의 하나로서 오로지 중생제도를 위한 헌신적 포교로 일관해 오셨으며 본 법사종을 창종하시어 오늘날까지 이끌어 오신 청하 하순성 대법사님의 본종 제 1세 종정 추대식과 아울러 교계에서 30여년이란 오랜기간 여성법사란 신분으로서 전법에 전념해 오신 원덕 성순경 법사님의 본종 제 2대 총무원장 취임식을 봉행하므로써 종단의 발전은 물론 오늘과 같은 난국대처에 불자로서 크게 기여될 것이라 믿고 여기 본 법회를 마련하게 되었사오니 오늘 이 자리에 동참하여 주신 여러분께서 이 두분의 앞날을 위해 성원의 큰 박수를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천5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된 제1세 종정 및 제2대 총무원장 취임법회에서는 나라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발원하면서 재가법사의 결속을 다졌다.

"근검절약으로 나라 살리자" 결의

하순성 종정 · 성순경 총무원장 취임…사부대중 1500명 참석

대한불교법사종(총무원장 성순경)은 4월17일 올림피아호텔 임페이리얼 홀에서 나라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기원대법회를 봉행했다. 제1세 하순성 종정 및 2대 성순경 총무원장 취임식도 더불어 가졌다.

이날 법회는 월운(동국대 역경원장) 대산(대한불교종정협의회 회장) 송정(조동종 총무원장) 봉주(前 조계종 호계위원장), 대우(前 조계종 교무부장)스님을 비롯해 오형근 前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장, 김명륜 국회의원, 임창렬 前 경제부총리, 서강대 명예 총장 박홍신부, 홍두표 前 KBS사장, 황상구 前 대구지검장, 이외윤 (사)불교교화원총재, U PHone myttmy 미얀마대사, Ven Banagala upatissa 스리랑카 큰스님, 티벳 링포체 스님 외 11명의 스님 등 1천5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법회는 발원문 대회사 낭독, 종정 법어, 총무원장 취임사, 축사·결의문 낭독 등으로 진행됐다.

김명륜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남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그 짐을 지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선근공덕으로 머지않아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이 이뤄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불자들이 모이는 모든 자리가 보살의 수많은 보시공덕을 다른 이에게 회향하는 '입일체평등 선근회향(入一切平等 善根回向)'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또 이날 법회에서 사부대중은 결의문을 통해 호국불자임을 재다짐하고, 근검절약정신 고취, 절공양음식 간소화, 외환사용 절제, 실업자 구제에 힘쓸 것 등 나라경제를 살리기 위한 굳은 의지를 다졌다.

1994년 11월11일 창종선포식을 가진 법사종은 유발·삭발승니와 재가법사, 신도로 구성돼 있으며, 4백여 사찰과 2천여명의 지도자가 있다. 그리고 〈유마경〉과 〈승만경〉을 소의경전으로 삼고 있다.

법사종은 미래불교는 재가불자들의 활동여하에 달려있다고 진단, 법사중심으로 대사회 포교활동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호국불교' '생활불교' '현대불교'를 주창해 재가불자들의 권익과 한국불교의 일대전환을 꾀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여법사회 6월25일 예수재 경제회복 · 업장소멸 기원

한국불교전국여법사회(회장 성순경)는 6월25일(음력 윤 5월2일) 오전 10시 금강원 설법전에서 경제안정기원 및 업장소멸 생전예수재를 봉행한다.

이번 생전예수재는 윤달을 맞아 마련된 것으로 성순경 회장은 "생전예수재는 살아있을 때 미리 자기가 지은 업장을 소멸시키는 재의식이다"면서 "△빈궁곤고(貧窮困苦)를 면하고 △기한(飢寒)의 고(苦)를 면하고 △선망부모(先亡父母)가 왕생극락하고 △수명장수하고 △생사초탈하고 △건강하고 재주, 지혜의 구족 △재산, 권속 풍족 △지위와 명예 높아지고 △삼매(三昧)가 현전하여 염라대왕을 친견하고 △생전사후에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이 옹호 친견하는 공덕이 있다"고 강조했다.

동참접수 (02)395-2571~2 Fax (02)395-2574